

### ‘광복 80년, 아직 오지 않은 해방’ 금속노조 통일활동가대회 개최 트럼프 관세·전쟁기지화 저지 투쟁 선포 ... “노동자 생존권 투쟁은 곧 반미투쟁”

금속노조가 광복 80년을 맞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단양 청소년수련원에서 통일활동가대회를 열고 ‘아직 오지 않은 해방’ 완성을 위한 노동자의 자주·평화·통일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는 ‘광복 80년, 아직 오지 않은 해방 - 노동자의 길, 자주성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집체극, 통일 활동 보고 영상, 정치 발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투쟁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광복 80년이자 을사늑약 120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60년, 그리고 미국에 한반도 위임통치를 요청했던 이승만 탄핵 100년이 되는 해”

라며 “100년 전 주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매국노 이승만의 탄핵에서 오늘날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까지, 우리는 여전히 자주독립을 쟁취해야 할 역사 앞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순영 부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전쟁과 공급망 재편은 한국 제조업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은 곧 반미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운동 선봉에서 싸워왔다. 한미FTA 저지 투쟁, 세월호 진상 규명 투쟁, 한반도 평화 실현 투쟁,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 투쟁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가장 먼저 막힌 길을 뚫어왔다”라며 “이제 투쟁의 선봉에 서자. 광복 80년을 진정한 자주독립의 해로 만들고, 자랑스러운 금속노동자가 새로운 자주성의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통일활동가 대회에서는 김장호 민주노동연구원 자문위원이 ‘트럼프 관세 및 동맹수탈의 본질, 노동자 투쟁과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로, 미국과 중국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제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서 통일운동을 실천해 온 조합원들 발언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매일 소성리에서 불법 사드 철거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균 노

조 경남지부 이래CS지회 지회장은 새벽마다 사드 반입 현장에서 미군 차량 진입을 막아내며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균 지회장은 “소성리에서의 투쟁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반복되는 실천 속에 피로감도 컸지만, 마을 주민들이 곳곳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멈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사드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 땅을 전쟁기 지화하려는 미국의 술수에 불과하다”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를 ‘중국 앞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부른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핵심 산업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한편, 전쟁은 한반도에서 대신 치르려 한다. 이는 명백한 착취”라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 싸워야 한다. 불법 사드 철거와 전쟁기지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석환 노조 경기지부 크린팩토메이션지회 조직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역사를 돌아보게 됐다”라며 “자주평화순례에 참여하고 해설사가



지 맡으면서, 과거를 공부하는 일이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김영운 울산지부 SJG세종지회 조직부장은 “평택 캠프햄프리스를 직접 마주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다”라며 “그 넓은 땅과 호화로운 미군 주둔 시설, 전국 곳곳에 퍼진 미군 기지를 보며 (통

일선봉대 활동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자주·평화·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통일선봉대 깃발 아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주의 길로 나서는 노동자’를 함께 부르며 우리 손으로 반드시 광복 80년 자주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